

진안 농기계 서비스 '인기'

임대·작업 대행 등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72종 513대 사전예약제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 농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 농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 농기계고객지원센터에서 농기계의 임대와 농·작업 대행은 물론, 순회수리, 안전사용교육, 폐유교환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72종 513대의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은 일반희망농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농기계의 사전 점검과 수리로 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임대농기계 사용 중 고장수리비를 농가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수리비를 농가가 50%, 군에서 50%로, 농가부담 최대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는 농기계 조폐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73

회 순회 수리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수리는 물론 안전사용 교육과 친환경 엔진오일 교환사업을 진행하여 이로 인해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로 군수는 "농기계 서비스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효용을 얻고 있는 사업 중 하나

다"며 "올해는 남부권(마령)과 동부권(동향) 2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신축하여 현장중심 농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으로 1억원의 세입증대와 수십억원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의회 5분 자유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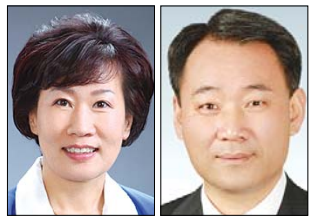
이해양, "무주-전주 시외버스 노선 변경해야"

이성수 의원, 쇠락한 무주덕유산리조트 활성화 방안 제시

무주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부의장과, 이성수 의원이 대중교통과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전주 간 시외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요금을 1,000원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진안-전주 구간 노선을 일반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변경할 경우 요금 인하와 시간 단축은 물론 군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운임은 각각 km당 116.14원, 62.35원이다. 불과 16km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주-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이 9,300원인데 비해 무주-대전 간 시외버스 요금이 4,400원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며, 이 의원은 무주-전주 간 직통버스 노선 개설 및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이성수 의원은 1인당 군민소



이해양 의원

이성수 의원

득 750여만원에 불과한 무주군이 전라북도 제일의 관광지, 부유한 지자체로 비춰지는 것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옛 명성이 주는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간매출액 1천억원에 육박하던 무주덕유산리조트의 매출이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무주군 관광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쇠락은 곧바로 주변상권은 물론 무주군 지역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쇠락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의원은 ▲시설 투자 및 운영방법 개혁(서비스 개선, 지역 환원 등) ▲제3자 매각 ▲무주군(권소사업) 인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은 ▲시설 투자 및 운영방법 개혁(서비스 개선, 지역 환원 등) ▲제3자 매각 ▲무주군(권소사업) 인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장수군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3월부터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은 불필요·부담이 되는 규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사례집을 검토해 '장수군 군계획 조례' 외 10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규제지도 관련조례 및 법령위임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에코빌리지 잔여지 분양"

28일까지 40필지 대상... 3.3㎡당 38만~45만원

무주군은 안성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 마을이 지난해 12월 사전입주자 분양을 마치고 잔여지 분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잔여지 40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은 이달 28일까지 16일 간 진행(접수 :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 전담)될 예정으로 분양가격은 3.3㎡당 38만~45만원이며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전문 마을담당 과장은 "안성 공정지구(에코빌리지)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덕유산 IC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덕유산 무주리조트 등과도 인접해 여유로운 전원생활 최적지"이며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와, 시장, 은행, 행정관서가 밀집한 시내권과도 인접해 전원주택지로는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안성공정지구(에코빌리지, 공정리 2976번지)는 2015년 10월 마을정비구역 지정(취락지구) 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54필지의 전원주택 기반시설 토목공사율 95% 완료·시행 중이며 올해 5월 말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063-320-2660/관련 정보: 무주군 홈페이지)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봄방학 어린이 문화체험프로그램 완주 둔산영어도서관, 17일부터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에서는 봄방학을 맞아 관내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봉동지역 어머니들로 구성된 '깔깔깔 인형극단'의 '오랏차차 방귀며느리' 인형극공연이 오는 17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연극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원작을 색다르게 각색해 스모그머신 장비와 다양한 효과가 어우러진 수준높은 공연으로 인형극공연과 함께 레크레이션행사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책속에서 만났던 과학 원리와 지식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창의력 실험과학교실'도 운영한다.

강좌는 △16일(목) 반짝반짝 전기가 흐르는 오리 △21일(화) 커지면 들어오고 작아지면 나가는 것은? △23일(목) 빛이 만드는 만개의 그림 △28일(화) 내 손으로 만드는 천체망원경 등 총 4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 (<http://lib.wanju.go.kr>) 또는 전화(290-224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진안군은 13일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개 분야 630개소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은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해빙기 위험시설, 위험물질, 안전 사각지대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안군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군 전체 시설관리부서, 민간전문가, 소방·전기·가스 등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기 바란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용진읍, 기관단체장회의

완주군 용진읍은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관·단체별 현안업무 공유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용진읍 기관단체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

전년 대비 32.6% ↑ 지방세 1329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징수

완주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실시,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별동기동대 운영,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지방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 평가로 전라북도 세정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세정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성실납세

자 표창, 완주군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ARS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다.

또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실시,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별동기동대 운영,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지방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 평가로 전라북도 세정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세정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성실납세

장수군,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정 모집

37가정 대상... 15일부터 마감시까지(12월 예정) 신청 접수

장수군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 방문 기회가 없는 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사업' 신청을 2017년 2월 15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12월 예정)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모국을 방문함으로써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37가정을 선정해 왕복항공권, 왕복 교통비 등(1가정 최대 28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격은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350-2342),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352-33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